Market Talks
교육 센터

암호화폐 · 초급 · 15강 중 8강

시가총액, 공급량, 토크노믹스 기초

코인의 가격만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유, 세 가지 공급량, 완전 희석 가치, 토큰 언락, 그리고 코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읽는 시간 10분 퀴즈 8문항, 정답 포함

암호화폐 · 초급 · 15강 중 8강

시가총액, 공급량, 토크노믹스 기초

한 문장 요약

코인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시가총액과 공급량의 내막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유통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존재하게 되는지, 잠긴 코인이 언제 풀리는지,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가 그것입니다.

시가총액: 가격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초보자는 흔히 0.01달러짜리 코인은 싸고 1,000달러짜리 코인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인마다 발행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더 쓸모 있는 숫자는 **시가총액**입니다.

> 시가총액 = 가격 × 유통 공급량

코인 A가 1달러에 거래되고 유통 중인 코인이 100억 개라면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입니다. 코인 B가 1,000달러에 거래되고 코인이 100만 개라면 시가총액은 10억 달러입니다. 가격은 코인 B가 더 높지만, 시장은 코인 A를 열 배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센트도 안 되는 코인이 시가총액이 터무니없이 커지지 않고서는 그냥 "1달러까지 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코인이 500조 개인 밈코인이 개당 1달러가 되면 그 가치는 세상의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 수백 배나 커집니다.

시가총액은 코인의 크기를 빠르게 가늠하는 가장 좋은 지표지만, 장부상의 가치일 뿐 실제로 쌓여 있는 돈은 아닙니다. 코인에 들어간 돈의 양이 아니며, 보유자들이 그 금액을 그대로 빼낼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이든 실제로 거래되는 코인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보유자가 한꺼번에 팔면 그 금액에 한참 못 미쳐 가격이 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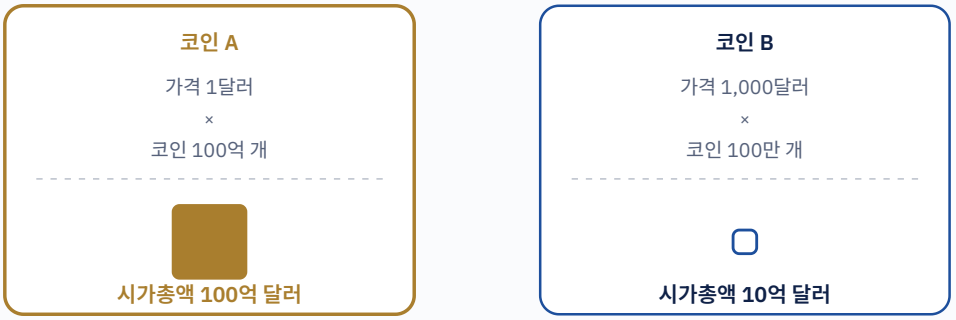


그림 1. 코인의 크기를 보여 주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시가총액입니다. 코인 A는 가격이 더 낮지만 시가총액은 열 배입니다.

세 가지 공급량

CoinGecko나 CoinMarketCap 같은 데이터 사이트는 세 가지 공급량을 보여 줍니다.

- **유통 공급량:** 이미 존재하고 지금 거래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 **총 공급량:** 지금까지 만들어진 코인으로, 잠겨 있어 아직 팔 수 없는 코인도 포함합니다.
- **최대 공급량:** 한도가 있다면,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코인의 최대 개수입니다.

비트코인은 간단합니다. 2강에서 보았듯 약 2,000만 개가 유통 중이고 최대 공급량은 2,100만 개입니다. 3강에서 보았듯 이더에는 최대 공급량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규 토큰은 지금 유통되는 양과 나중에 존재하게 될 양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예상 밖의 일이 바로 이 차이에서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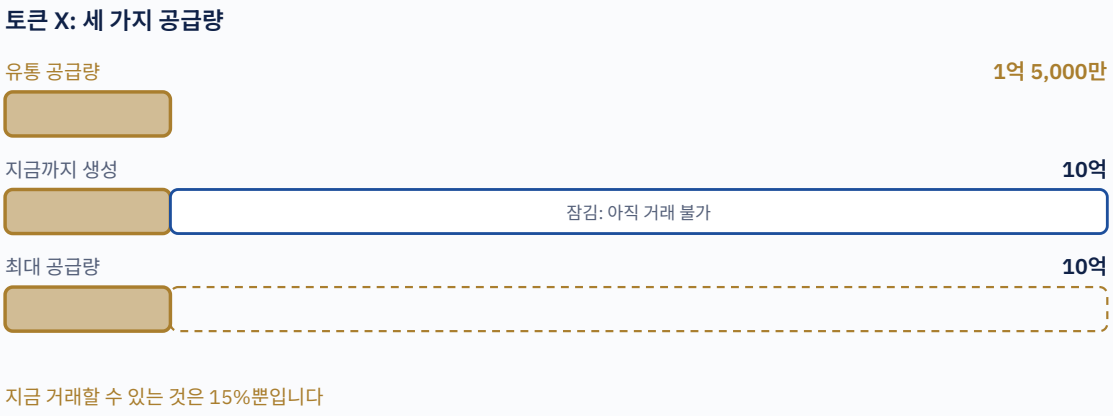


그림 2. 지어낸 예시인 토큰 X. 지금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유통 공급량뿐이며, 나머지는 만들어졌지만 잠겨 있습니다.

완전 희석 가치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 트레이더들은 **완전 희석 가치(FDV, fully diluted valuation)**를 봅니다. 가격에 최대 공급량을 곱한 값이며, 최대 공급량이 없으면 총 공급량을 곱합니다. 모든 코인이 이미 오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

다면 시가총액이 얼마일지에 대한 답입니다.

토큰 X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가격은 2달러이고, 최대 공급량 10억 개 중 1억 5,000만 개가 유통 중입니다. 시가총액은 3억 달러지만 FDV는 20억 달러입니다. 시장에 나온 코인은 15%뿐이고, 나머지 85%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패턴은 최근 몇 년 사이 흔해져서 **낮은 유통량, 높은 FDV**(low float, high FDV)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Binance Research는 2024년 보고서에서 그해 출시된 토큰은 평균적으로 FDV의 약 12%만 유통되고 있었다고 밝혔고,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약 **1,550억 달러**어치의 토큰이 언락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격이 유지되려면 새 매수자들이 늘어나는 코인을 모두 받아 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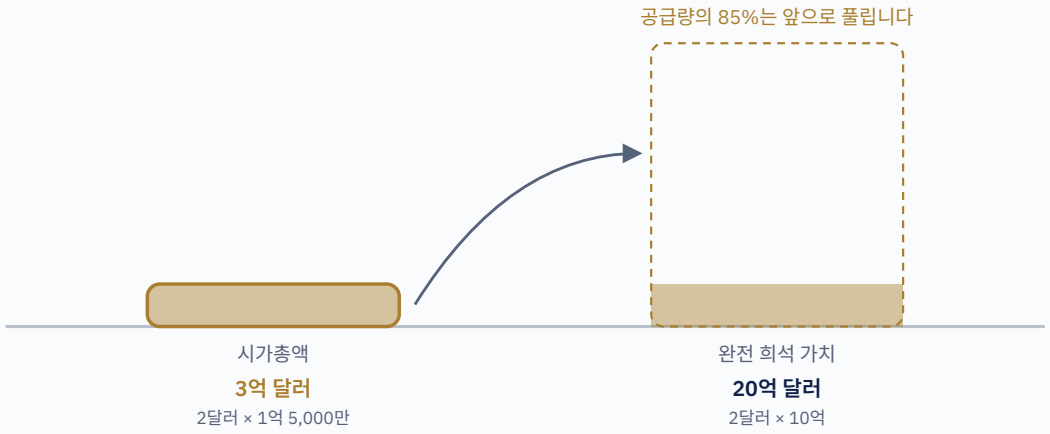


그림 3. 시가총액은 유통 중인 코인만 셉니다. 완전 희석 가치는 앞으로 존재할 모든 코인을 셉니다.

토큰 언락과 베스팅

프로젝트 팀과 초기 투자자에게 주어진 코인은 보통 출시 시점에 잠겨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는데, 이 과정을 **베스팅**이라고 합니다. 흔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리프:** 처음 12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 그다음 **선형 해제:** 이후 2~4년 동안 매달 같은 양이 풀립니다.

풀리는 각각을 **토큰 언락**이라고 합니다. 큰 언락이 다가오면 코인을 받는 사람들이 그중 일부를 팔 수 있으며, 많은 투자자가 훨씬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보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매도가 가격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언락은 미리 발표되기 때문에 영향의 일부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은 프로젝트 문서에 공개되며, Tokenomist나 CoinGecko 같은 사이트가 다가오는 언락을 추적합니다.



그림 4. 토큰 X의 전형적인 베스팅 일정입니다. 12개월 클리프 뒤 전체 공급량이 유통될 때까지 매달 언락됩니다. 일정은 지어낸 예시입니다.

비유: 시간을 두고 풀리는 콘서트 티켓

오늘 티켓 1,000장을 판매하는 콘서트가 있는데, 주최 측이 앞으로 3년에 걸쳐 풀 티켓 9,000장을 더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의 티켓 가격은 1,000석만 반영한 것입니다. 티켓이 더 풀릴수록, 가고 싶어 하는 팬이 훨씬 많아져야만 가격이 유지됩니다. 토큰 언락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코인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모든 프로젝트는 공급량을 여러 집단에 어떻게 나누는지 보여 주는 **토큰 배분**을 공개합니다. 요즘의 전형적인 프로젝트라면 팀에 약 20%, 초기 투자자에게 약 15~20%, 생태계 펀드와 프로젝트가 관리하는 트레저리에 큰 몫을 주고, 나머지는 에어드롭과 보상을 통해 커뮤니티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만한 것들:

- 팀과 투자자, 즉 내부자에게 얼마나 갔고, 그들은 얼마나 싸게 샀나요?
- 그들의 코인은 얼마나 오래 잠겨 있나요?
- 보유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나요? 몇몇 지갑이 공급량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만으로도 가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배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모든 비트코인은 0개에서 시작해 채굴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흔히 **공정 출시**(fair launch)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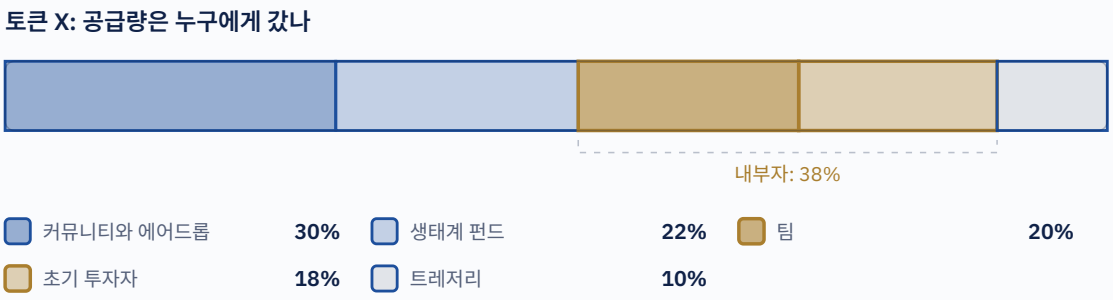


그림 5. 설명을 위해 지어낸 전형적인 토큰 배분입니다. 팀과 초기 투자자가 합쳐서 38%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코인, 소각되어 나가는 코인

공급량은 출시 이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네트워크가 채굴자, 검증자, 스테이킹하는 이용자에게 보상으로 새 코인을 계속 만들어 줍니다. 새 코인이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빨리 나오면 코인 하나의 가치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강에서 본 인플레이션과 같은 원리입니다.

반대로 코인을 **소각**해 공급량을 줄이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3강에서 보았듯 이더리움은 모든 수수료의 일부를 소각합니다. BNB Chain은 총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BNB를 소각합니다. 소각은 새 발행을 상쇄할 수 있지만, 공급량과 계속 만들어지는 코인에 비해 규모가 클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량과 유동성

두 가지 숫자가 그림을 완성합니다.

- **24시간 거래량:** 지난 하루 동안 그 코인이 얼마나 거래되었는지입니다.
- **유동성:** 가격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의미 있는 양을 얼마나 쉽게 사고팔 수 있는지입니다.

시가총액이 5억 달러인데 하루 거래량이 20만 달러에 불과한 코인은 거래가 얇습니다. 적당한 양만 팔아도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거래량을 부풀려 발표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같은 주체가 스스로 사고팔아 거래량을 만드는 **자전 거래**(wash trading)를 쓰기도 합니다. 보통은 크고 잘 알려진 거래소의 거래량이 가장 믿을 만합니다.

트레이더에게 왜 중요한가

- **가격이 아니라 시가총액을 비교하세요.** 어떤 목표 가격이 시가총액으로 얼마를 뜻하는지 따져 보면 그 목표가 현실적인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언락 일정을 지켜보세요.** 큰 언락은 날짜가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에 공급이 풀리면 그 무렵 코인의 거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 많은 트레이더가 미리 날짜를 적어 둡니다.
- **MC/FDV를 확인하세요.** 이 비율이 낮으면 공급량 대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사이트는 시가총액 옆에 이 비율을 보여 줍니다.
-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길을 정합니다.** 거래가 얇은 코인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가격이 실제로 팔 때 받는 가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슬리피지는 9강에서 설명합니다.

핵심 용어

시가총액	가격에 유통 공급량을 곱한 값으로, 시장이 지금 코인을 평가하는 가치입니다.
유통 공급량	이미 존재하고 지금 거래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최대 공급량	프로젝트가 한도를 정했다면,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코인의 최대 개수입니다.
완전 희석 가치(FDV)	가격에 최대 공급량이나 총 공급량을 곱한 값으로, 모든 코인이 이미 유통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베스팅	팀이나 투자자의 잠긴 코인을 시간을 두고 조금씩 풀어 주는 것입니다.
클리프	잠긴 코인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 처음 기간입니다.
토큰 언락	잠겨 있던 코인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장에 풀리는 것입니다.
공정 출시	내부자 몫으로 떼어 둔 코인 없이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코인을 얻는 출시 방식으로, 비트코인의 채굴이 그 예입니다.

핵심 정리

1. 가격만으로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가격에 유통 공급량을 곱한 시가총액이 크기를 재는 진짜 척도입니다.
2. 유통 공급량, 총 공급량, 최대 공급량은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예상 밖의 일은 그 차이에서 생깁니다.

3. FDV는 모든 코인이 유통된다면 얼마일지를 보여 줍니다. 2024년에 출시된 토큰은 평균적으로 FDV의 약 12%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4. 팀과 투자자의 코인은 보통 클리프가 지난 뒤 매달 풀립니다. 큰 언락은 매도 압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5. 토큰 배분은 공급량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보여 줍니다. 비트코인에는 배분이 없었고, 모든 코인이 채굴되었습니다.
6. 새 발행은 공급을 늘리고 소각은 줄입니다. 거래량과 유동성은 코인을 실제로 얼마나 쉽게 거래할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실력 점검

각 문제에 답을 하나씩 표시하세요. 해설이 포함된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markettalks.info에서 온라인으로 퀴즈를 풀고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코인 A는 1달러이고 100억 개가 유통 중입니다. 코인 B는 1,000달러이고 100만 개입니다. 시가총액이 더 큰 쪽은?

- A 가격이 더 높으므로 코인 B
- B 코인 A: 100억 달러 대 10억 달러
- C 둘이 같다
- D 계산할 수 없다

2. 유통 공급량이란 무엇인가요?

- A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코인
- B 이미 존재하고 지금 거래할 수 있는 코인
- C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
- D 소각된 코인

3. 토큰 X는 2달러에 거래되고 1억 5,000만 개가 유통 중이며 최대 공급량은 10억 개입니다. FDV는 얼마인가요?

- A 3억 달러
- B 10억 달러
- C 20억 달러
- D 1억 5,000만 달러

4. "낮은 유통량, 높은 FDV"는 무엇을 뜻하나요?

A 거래할 수 없는 코인
B 공급량 중 유통되는 몫은 작고 앞으로 언락될 양은 많은 토큰
C 페그를 잃은 스테이블코인
D 최대 공급량이 없는 코인

5. 베스팅 일정에서 클리프란 무엇인가요?

A 갑작스러운 가격 폭락
B 마지막 언락 날짜
C 코인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 처음 기간
D 팀 코인의 소각

6. 큰 토큰 언락이 가격을 짓누를 수 있는 이유는?

A 언락이 코인을 파괴해서
B 흔히 싸게 산 수령자들이 새로 풀린 코인 일부를 팔 수 있어서
C 언락 동안 거래소가 거래를 멈춰서
D 언락이 트랜잭션 수수료를 올려서

7. 비트코인을 흔히 공정 출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A 가격이 늘 공정했기 때문에
B 내부자 배분이 없었고, 모든 코인이 채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C 정부가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D 모두에게 무료로 나눠 주었기 때문에

8. 어떤 코인의 시가총액은 5억 달러인데 하루 거래량은 20만 달러뿐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A 거래하기가 아주 쉽다
B 거래가 얇아서 적당한 양만 팔아도 가격이 급격히 움직일 수 있다
C 스테이블코인이다
D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1 B

코인 A: 100억 달러 대 10억 달러

시가총액은 가격에 유통 공급량을 곱한 값입니다. 코인 B의 가격이 더 높아도 코인 A는 100억 달러, 코인 B는 10억 달러입니다.

2 B

이미 존재하고 지금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유통 공급량에는 잠긴 코인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코인이 빠집니다. 시가총액은 이 값으로 계산합니다.

3 C

20억 달러

FDV는 가격에 최대 공급량을 곱한 값입니다. 2달러 × 10억 = 20억 달러이며, 시가총액은 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4 B

공급량 중 유통되는 몫은 작고 앞으로 언락될 양은 많은 토큰

지금 거래되는 공급량이 일부뿐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새 공급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5 C

코인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 처음 기간

흔한 일정은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12개월 클리프 뒤에 매달 언락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6 B

흔히 싸게 산 수령자들이 새로 풀린 코인 일부를 팔 수 있어서

팔 수 있는 코인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다만 언락 날짜는 미리 공개되므로 영향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7 B

내부자 배분이 없었고, 모든 코인이 채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0개에서 시작했고 누구나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규 토큰은 팀과 투자자 몫을 크게 떼어 둡니다.

8 B

거래가 얇아서 적당한 양만 팔아도 가격이 급격히 움직일 수 있다

거래량과 유동성이 낮다는 것은 사고파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화면의 가격이 실제로 받는 가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출처

- Crypto Briefing, Binance Research는 2030년까지 토큰 언락 규모가 1,5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https://cryptobriefing.com/binance-research-token-unlocks-2030
- Cointelegraph, Binance가 프로젝트들에 높은 FDV 추세에서 벗어나라고 촉구: https://cointelegraph.com/news/binance-urges-small-medium-projects-high-fdv-trend
- Kraken, 비트코인 2,000만 개 채굴: https://blog.kraken.com/news/industry-news/20-million-bitcoins-mined

Market Talks

계속 학습하기

다음: 9강
암호화폐는 어디서 거래되는가: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이 강의는 MARKET TALKS 교육 센터의 암호화폐 과정에 속합니다. 초급 강의는 무료이며 강의마다 퀴즈와 다운로드 가능한 PDF가 제공됩니다. 중급과 고급 강의는 회원 전용입니다.

교육 센터
기초 원리부터 고급 주제까지 다루는 강의

시장 분석
주요 시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리포트
비트코인, 금, 은, SPX 등

markettalks.info

텔레그램 @MARKET_TALKS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 2026 MARKET TALKS. 이 PDF는 수정 없이 자유롭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